

2026년 3월 9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지정학, CPI, 실적이 유발할 변동성 확대 구간

한국 증시는 1) 미국-이란 간 전쟁 뉴스플로우 및 국제 유가 방향성
2) 미국 2월 CPI, PCE, 4분기 GDP 등 물가 및 경기 지표 3) 오라클, 어도비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 4)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일정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150~5,800pt)

중동 지정학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라클 실적, CPI 등 이번주에는 주 초반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 마이크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 초반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하는 구간. 이를 감안시,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전쟁 리스크 우려 반영 속 주가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산, 정유주 등 전쟁 및 유가 상승 수혜주 중심으로 자금 로테이션 나타날 것으로 전망. 또한, 정책 기대감 및 금주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예정된 코스닥 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 지속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Market/ESG 이성훈
sh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3월 6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전쟁 리스크 격화 속 극도의 위험회피 심리 부각되며 투매 현상 심화됨에 따라 양 지수 10%대 후반의 급락세 연출. 이후 단기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미국-이란 물밑 접촉설 등의 영향으로 주 후반 낙폭 일부 회복한 채 마감 (KOSPI -10.56%, KOSDAQ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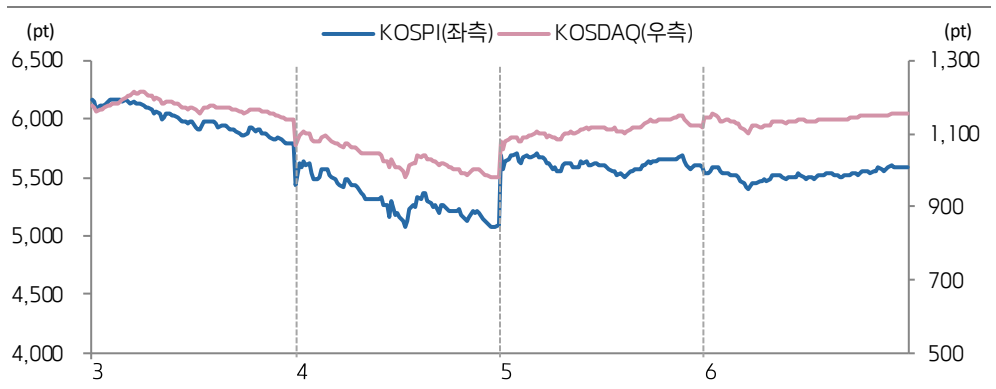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주 첫 거래일을 삼일절 대체공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주말 간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 확대 우려를 일시에 반영하며 급락세로 출발. 이에 따라, 3일~4일 2거래일 간 코스피는 -18.5% 급락하며 단기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 주요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유독 낙폭이 과도했던 배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1)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국내 증시에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점과 2)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공급망 전반에 걸친 구조적 타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

다만, 단기간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 밸류에이션 매력도 재차 증가(4일 코스피 증가 5,093pt 기준, 12개월 선행 PER 8.1배)한 가운데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물밑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일시적으로 위험선호 심리 회복 트리거로 작용하며 5일 국내 증시는 큰 폭의 반등세 시현. 다만, 주 마지막 거래일 국제유가 상방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감 여전히 잔존한다는 인식 하에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다소 제한된 흐름 연출. 한편, 정부의 코스닥 정상화 정책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수급 유입 기대감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의 반등 탄력이 더 두드러졌던 한 주였음

업종별로 부동산(-3.15%), 비금속(-4.14%), 금속(-4.48%), 의료/정밀기기(-5.1%), 보험(-5.6%)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14.93%), 유통(-12.53%), 전기/전자(-12.22%), IT 서비스(-11.97%), 제조(-10.79%)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7조 48억원)은 금융(+8,985억원), 제약(+3,587억원), 보험(+1,745억원), 건설(+1,674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4조 3,165억원)은 기계/장비(+776억원), 금속(+675억원), 증권(+435억원), 부동산(+94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3월 9일	월	중국	PPI (YoY)	2월	-1.1%	-1.4%
			CPI (YoY)	2월	0.9%	0.2%
		EU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3월	-	4.2
3월 10일	화	한국	경제성장률 (QoQ, 최종치)	4분기	-0.3%	1.3%(-0.3%)
		일본	경제성장률 (YoY, 최종치)	4분기	3.4%	3.4%(3.4%)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2월	-	99.3
		중국	무역수지	2월	-	114.10b
3월 11일	수	미국	CPI (YoY)	2월	2.5%	2.4%
			근원 CPI (YoY)	2월	2.4%	2.5%
			CPI (MoM)	2월	0.2%	0.2%
			근원 CPI (MoM)	2월	0.2%	0.3%
		실적 행사	오라클 인터배터리 2026(~13일)			
3월 12일	목	미국	무역수지	1월	-67.9b	-70.3b
		파생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3월 13일	금	미국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4분기	1.4%	4.4%(1.4%)
			PCE 물가지수 (MoM)	1월	0.3%	0.4%
			PCE 근원 물가지수 (MoM)	1월	0.4%	0.4%
			PCE 물가지수 (YoY)	1월	2.9%	2.9%
			PCE 근원 물가지수 (YoY)	1월	3.1%	3.0%
			개인 소득 (MoM)	1월	0.4%	0.3%
			개인 소비지출 (MoM)	1월	0.3%	0.4%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3월	57.0	56.6
			JOLTs 구인이직건수	1월	-	6542k
	실적	어도비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이란 간 전쟁 뉴스플로우 및 국제 유가 방향성 2) 미국 2월 CPI, PCE, 4분기 GDP 등 물가 및 경기 지표 3) 오라클, 어도비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 실적 4)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일정 등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150~5,800pt).

6일(금) 미국 증시는 중동 사태 격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점증 속 유가 급등(WTI 기준 90.9달러, +12.2%), 2월 고용 보고서 쇼크(비농업 고용 -9.2만 vs 컨센 +5.5만, 실업률 4.4% vs 컨센 4.3%)발 경기 둔화 우려, 블랙록(-7.2%)의 사모펀드 환매 제한 소식 등 겹악재 출현에 3대 지수는 하락 마감(다우 -0.95%, S&P500 -1.33%, 나스닥 -1.6%, 필라델피아 반도체 -3.9%). 중동 지정학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라클 실적(11일), CPI(11일) 등 이번주에는 주 초반 시장의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 마이크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 초반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하는 구간.

먼저, 현재 이란발 지정학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 전쟁 뉴스플로우와 유가 방향성이 급주에도 시장의 최대 변수로서 작용할 전망. 국제 원유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원유 감산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 없이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 속 전쟁 장기화 가능성 점증 이 국제유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 이에 지난주 주간 기준 국제유가(WTI 기준)는 35.6% 급등하며, 역대 선물거래 사상 최대 상승률 기록. 현재 시장은 유가 급등 →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 재점화 → 연준 금리 인하 지연, 국채 금리 상승 시나리오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68.8%)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유가 급등 부담은 제조업 중심의 석유 집약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 다만, 현재 한국은 이 같은 지정학 위기를 대비해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EIA 기준)해있는 상태이며, 정부 측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약 6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등 원유 수급 안정 확보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은 자국의 전쟁 지속 능력 약화를 의식할 수 밖에 없고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 급등+경기 둔화의 조합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전쟁 장기화가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전쟁으로 인한 증시 조정은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및 정책 동력을 감안시 매수 기회로 작용할 전망

한편, 3월 FOMC(한국 시간 기준 19일 새벽)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이 블랙 아웃 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금주 발표될 CPI 지표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한층 높을 것으로 판단. 현재 컨센서스 상 2월 CPI(YoY, 헤드라인 2.5% vs 전월 2.4%, 코어 2.4% vs 전월 2.5%)는 전월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이번 발표될 물가 지표는 중동 사태 이전의 지표라는 점에서 최근의 유가 급등분을 반영하지는 않음. 따라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최근 유가 상승 속 향후 발표될 물가 확대 우려 점증 →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시나리오를 반영하며, 금번 지표 발표가 이전 지표 대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은 염두에 두어야할 필요.

또한, 주중 예정된 오라클(11일), 어도비(13일)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실적도 주시해야할 이벤트. 특히, 오라클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예상치 대비 부진한 매출을 기록하며 주가 급락세 연출한 바 있음. 최근 AI 기술주 투자 비중이 높은 일부 사모펀드의 환매 제한 이슈 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오라클 실적은 AI 부채 건전성, 비용 우려를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이벤트.

따라서, 세부적으로 클라우드 부문 매출 성장률, RPO(수주잔고) 규모, Capex 가이드선, 컨퍼런스 콜에서의 시프로젝트 진행 과정 및 경영진의 재무 리스크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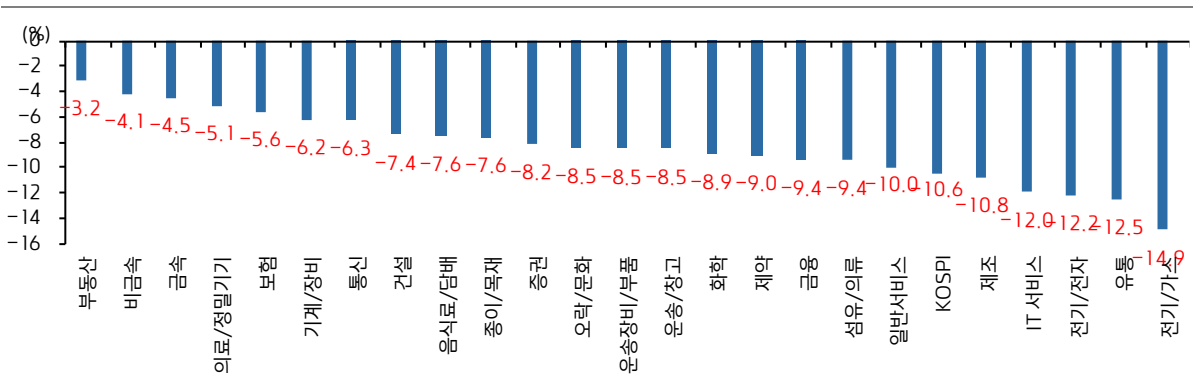
이를 감안시,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전쟁 리스크 우려 반영 속 주가 하방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방산, 정유주 등 전쟁 및 유가 상승 수혜주 중심으로 자금 로테이션 나타날 것으로 전망. 한편, 대외 이벤트 외에도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금주 10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삼성액티브, 타임폴리오 등). 지난주 미국-이란 전쟁 확산 우려에 따른 증시 패닉셀링 속 코스피가 -10.6%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은 -3.2%로 비교적 하락폭이 제한되었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매크로 불확실성 집중이 예상되는 금주 기간 동안 코스닥으로의 머니무브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 다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직후 재료 소멸 인식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하며, 편입 기대감을 선반영했으나 여부에 따라 코스닥 시장 내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 커질 수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5,584.87	0.0	-10.6	9.7	32.5
대형주	5,940.61	-0.2	-10.8	10.8	35.7
중형주	4,257.13	1.8	-8.9	2.1	14.4
소형주	2,724.40	1.2	-6.2	1.9	8.2
코스피 200	828.83	-0.3	-11.2	10.8	36.8
코스닥	1,154.67	3.4	-3.2	6.8	24.8
대형주	3,007.47	3.5	-2.5	11.3	33.6
중형주	1,105.52	4.0	-4.0	3.6	22.9
소형주	2,853.50	2.2	-3.9	0.8	10.9
코스닥 150	2,060.23	3.7	-2.7	10.7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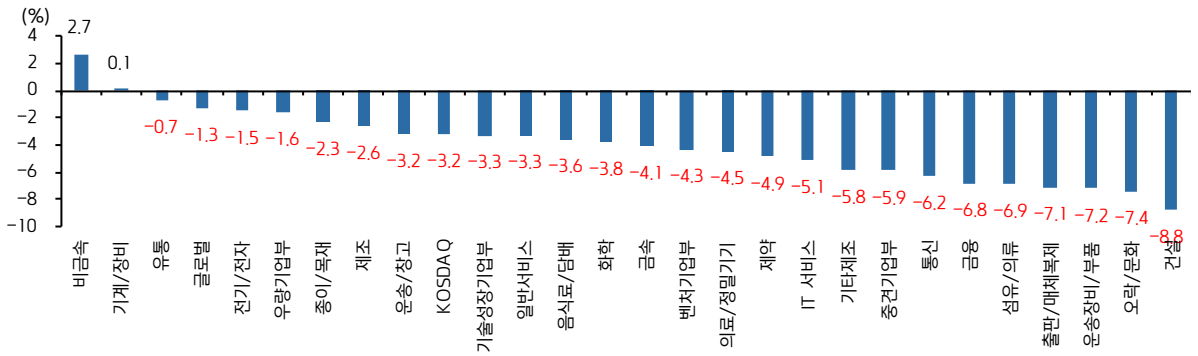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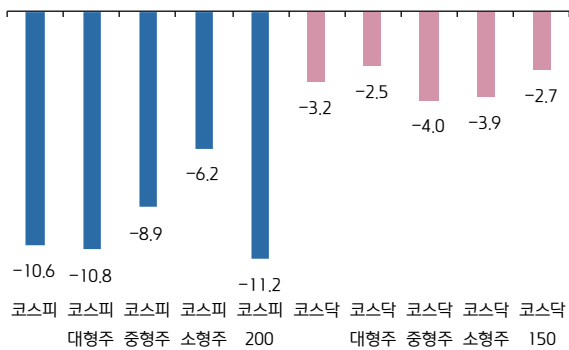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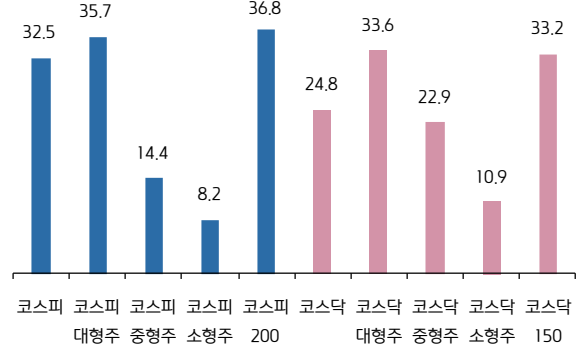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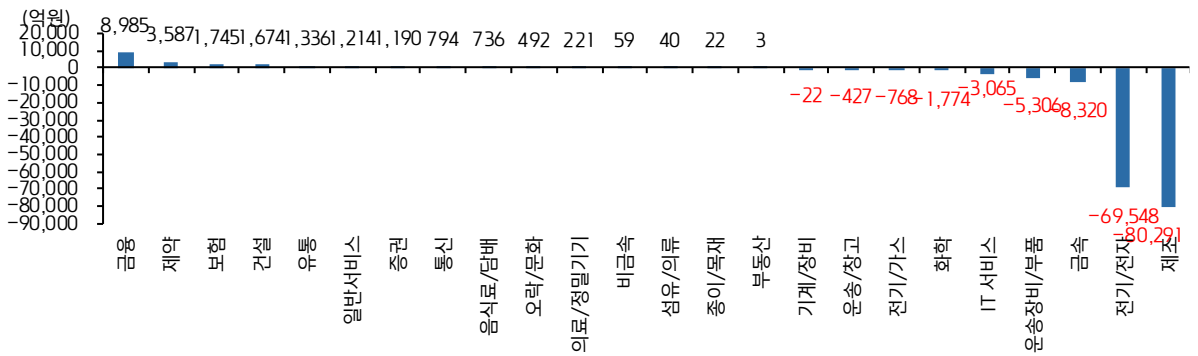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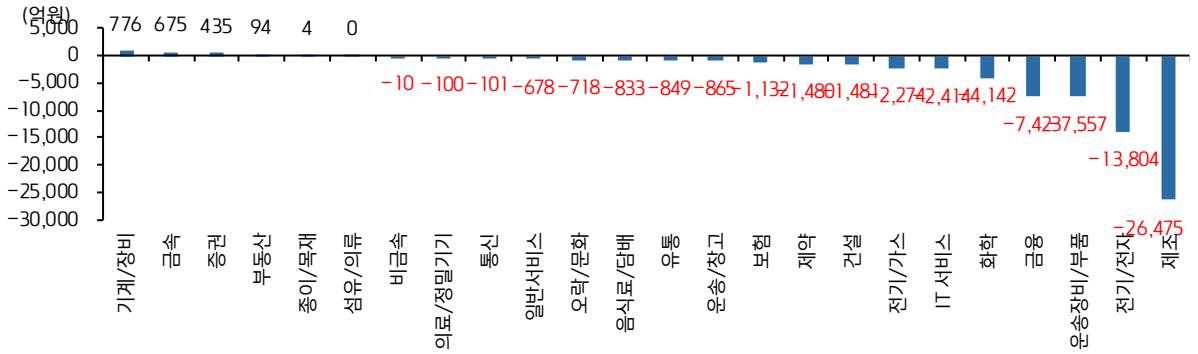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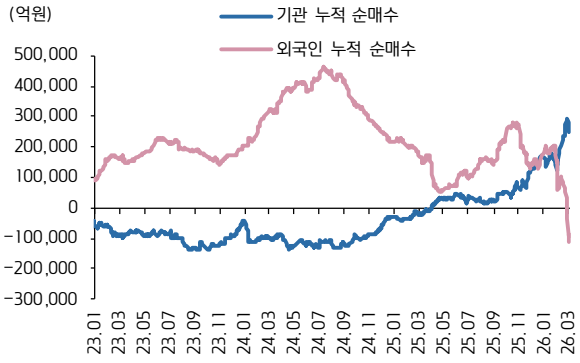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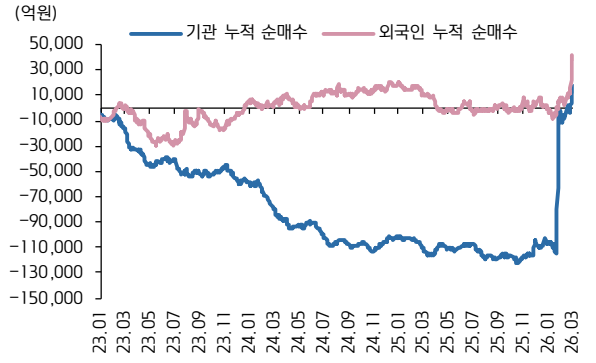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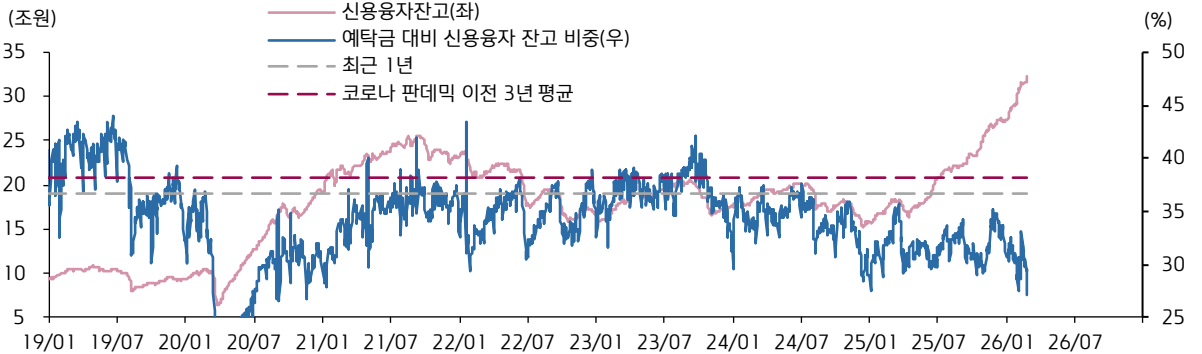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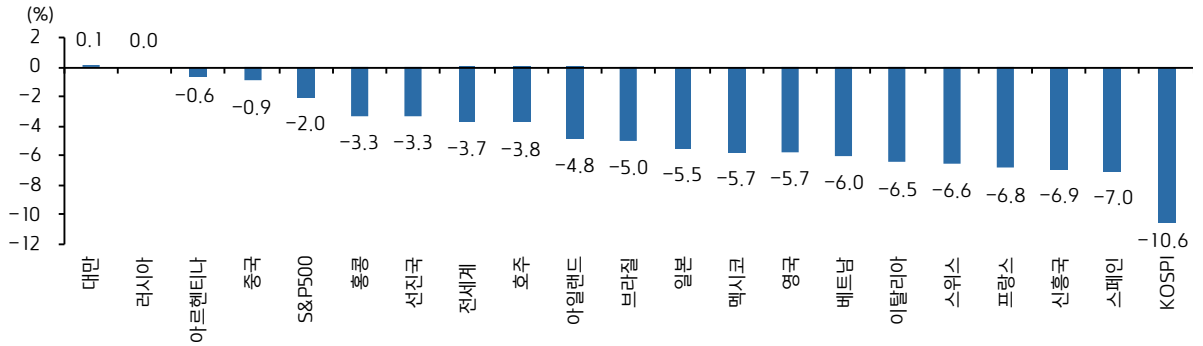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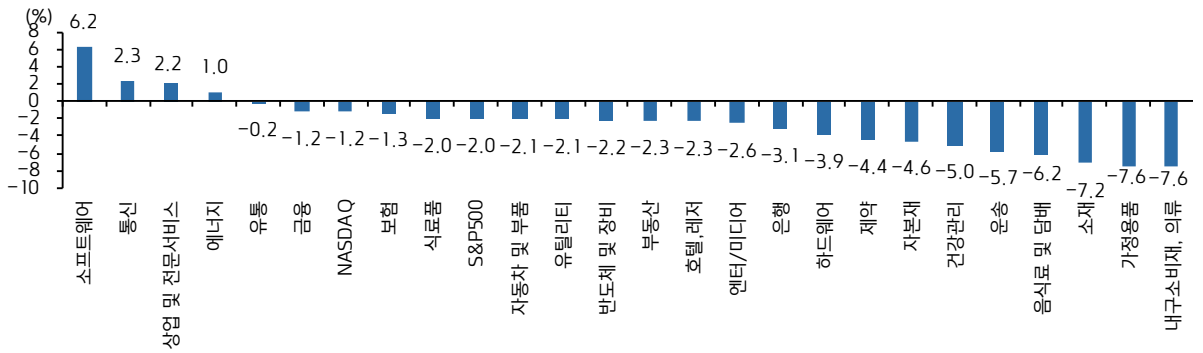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